

#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대

### 전북도, 문체부 공모 선정 국비 201억원 확보...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기대

전북도는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으로 31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민체육진흥기금 20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금 지원이 확정된 공모사업에는 김제시 김산체육공원에 수영장과 배드민턴장, 생활문화센터 등을 건립하는 김제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 30억원,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며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장애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반다비 체육센터) 60억원(익산시, 부안군), 근린생활권을 중심으로 거주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30억원(진안군, 무주군, 순창군)이다.

학교 교과시간에는 체육교육 공간으로 이용되며, 유휴시간대에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건립 4억8000만원(남원 주생초), 노후 체육시설과 이용자의 건강

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히 개보수가 필요한 사업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76억원 등이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밀착형 생활기반시설(생활SOC) 10대 과제 중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분야인 여가·건강활동 분야이며, 생활권 10분 거리 내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번 기금 확보가 도내 생활체육시설 사각지대 해소와 인구과밀로 인한 서비스 불편지역에 생활체육시설 수요 충족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제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문화센터는 수영장(25m\*8L)과 배드민턴장, 국민체육100, 헬스장 등의 체육시설과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회합과 연합활동, 문화예술단체를 중심으로 공연전시 발표를 할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를 함께 조성하는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한다.

전북도는 도민들이 체육시설을 방문하여 생활체육 서비스뿐만 아니라 문화 향유 서비스도 함께 누리는 다양한 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체육문화복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도 운동목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공모 선정된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추가 공모가 있을 것으로 확인되어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태세를 갖추어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확보된 국비 201억원이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일자리를 증가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도 활력을 띠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활기반시설(생활SOC) 분야 체육시설 확충으로 내가 사는 곳이 모두가 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김진성 기자

# 맛과 멋의 고장 전북의 매력에 흠뻑 빠지다

### 라오스 루앙프라방주 의장단 · 주정부 파견단, 전북 테마답사 참여

전북도국제교류센터(이영호 센터장)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유네스코 등재도시인 라오스 루앙프라방주 지방의회 및 주정부 방문단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2019년 제1회 전라북도 테마답사를 가졌다.

이번 답사에는 싸이썬컴퓨터 지방의회의장과 노동사회복지청장, 외무협력청장 등 주정부 관계자 10여 명이 참여했다.

첫날 6일에는 전북도 관광명소 중 하나인 부안 체석강, 2023 세계 짬버리 개최지와 새만금 홍보관 등을 시찰하고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음식이자 교류협력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전주비빔밥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전북도 대표 명소인 전주 한옥마을을 시찰하고 전통 다도체험으로 공식적인 일정을 마무리했다.

전북도 테마답사는 국내·외 외국인, 재외교민, 오피니언리더 등을 초청해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다양



전북도국제교류센터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라오스 루앙프라방주 지방의회 및 주정부 방문단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2019년 제1회 전라북도 테마답사를 가졌다.

한 테마를 활용, 전북 명소탐방을 통한 시장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 전북 글로벌 이미지 제고 등의 기대효과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영호 센터장은 "신남방정책에 발맞춰 아세안(ASEAN) 국가 중 하나인 라오스와의 교류확대를 기대하면

서, 루앙프라방주 지방의장단의 전라북도 방문에 힘입어, 향후 양 지역 간 지속적인 교류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상호 교류 증진을 통해 한국어 교육, 문화예술 및 인적 교류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 협약 7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는 부안 신재생에너지내에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을 위해 송하진 도지사, 광병성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북도, 공공디자인업무 본격 추진... 관련조례 정비로 법적 근거 확보

전북도는 무한디자인 경쟁시대에 통합적이고 일관된 디자인 개발 등도의 대내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업무를 본격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도시화와 사회 발전에 따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도민들의 욕구는 증가 추세로 확인되며 공공시설 디자인에 대해서도 좀 더 보기 좋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도는 이러한 도민들의 요구에 따라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도민들의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하기 위한 각종 공공디자인 사업과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디자인팀을 구성하여 금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공공디자인 업무는 공공공간과 공공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가로환경, 건축, 환경, 공공미술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전라북도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필요한 관련조례를

정비,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디자인, 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꾸려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시설물 설치 시 심의를 통해 공공성과 심미성을 함께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도에서는 2016년 제정된 관련 법률 및 종합계획에 맞추어 도 전체의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한다.

/김진성 기자

## 지역경제 활성화 주역 '우수중소기업인' 모집

전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도내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우수중소기업인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우수중소기업인상은 매년 지역경제 발전의 주역인 도내 중소제조업체 중 고용창출, 매출신장, 지역발전공헌, 우수신제품개발, 장수기업, 창업기업의 6개 부문에 많은 성과를 달성한 중소기업 대표와 중소기업 지원에 공헌도가 높은 경제단체 부문의 대표를 선정

해왔다. 선정된 기업과 단체에게는 부문당 3천4백만원의 경영개선을 위한 보조금이 지원되며 공로패와 인증현판이 수여된다.

또한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기업지원사업 참여시 가산점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등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수중소기업인상은 2003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부문별로 1명씩을 선정

해왔으나, 올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도내 중소기업을 격려하고자 고용창출분야 선정대상을 3명으로 늘려 총 9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서류는 21일까지 해당 시장·군수 또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기술보조금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접수하며, 도는 각 기관에서 추천받은 기업을 서류심사와 기업지원 외부전문가의 현장평가, 전북도 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수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김진성 기자

## 은퇴를 새로운 시작으로!

### 은퇴자 작업공간, 전주시 추가 선정 자존감 회복과 보람 있는 삶 기대

전북도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은퇴 후 노년기를 능동적으로 생활하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인은퇴자를 위한 작업공간'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노인은퇴자를 위한 작업공간'은 뉴질랜드의 '남자의 헛간(Men's Shed)'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도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으로 작년부터 우리 도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은퇴자 작업공간은 은퇴(예정)자들

이 공동작업장에서 책상, 의자, 장난감 교구 등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제작, 수리 및 판매를 통해 공동체 의식과 삶의 보람을 찾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익산시와 남원시에서는 작년 9월부터 140여명을 대상으로 목공, 용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공모를 통해 1개소(전주시)를 추가 선정했고, 향후 운영 실적과 사업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은퇴자 작업공간으로 선정된 수행기관에는 전담인력 배치, 공간조성, 각종 장비 구입 등을 위해 4억원(도비 2

억, 시군비 2억)을 지원하고, 작업공간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참여회원과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하며, 노인은퇴자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부터 은퇴자 작업공간에 참여한 A씨(62, 익산)는 "평소 관심 있었던 목공 작업을 직접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쓸모없어 보였던 나무막대기가 그럴듯한 의자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직장에서 은퇴는 하였지만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살 수 있다는 것에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전선미 전북도 노인장애인과장은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은퇴자 작업 공간이 자존감 회복과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취미활동뿐만 아니라 창업으로도 연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